



(사)한국포장협회

2022년 해외전시 지원사업 추진

러시아 'RosUpack 2022' 전시 참가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2022년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포장전시회(이하 RosUpack 2022)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확정 받았다.

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전시지원사업에 신청, 확정을 받음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RosUpack 2022' 에서 한국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RosUpack 2022' 는 2022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다.

협회 관계자는 "2022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RosUpack 2022' 에 한국관을 마련해 우리나라 포장기술의 우수함을 알리고 수출시장 개척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한국포장협회

러시아 화상상담회 진행

한국 기업에 관심 높은 러시아 기업과 상담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협회 사무국에서 한국 기업에 관심이 높은 러시아 기업들과 화상상담회를 진행했다.

(사) 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협회 사무국에서 한국 기업에 관심이 높은 러시아 기업들과 화상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화상상담회에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포장 관련기업 8개사와 러시아 바이어 8개사가 참여

했다.

협회는 바이어 100개사를 1차 선정 후 2차로 진성바이어 30개사를 선택, 회원사와 상담회를 진행할 8개사를 최종 선정해 화상상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24일에는 이번 러시아 화상상담회에 참여한 국내 포장 관련기업 8개사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가지고 개선사항,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러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셋다운에 들어가 상담회 진행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러시아 화상상담회에 참여해준 국내와 러시아 기업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상담회 후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청취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러시아, 터키 등의 화상상담회를 진행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한국포장협회

제36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 성료

47명 수료, 총 2,918명 배출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해 8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1주간 진행한 제36기 포장기술

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을 성료했다.

이번 제36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는 52명이 신청해 47명이 수료했다.

이 가운데 삼아알미늄(주)의 김동진 사원이 총 1백점 만점에 96.9점을 획득해 1등으로 수료했으며, 이어서 한국콜마의 김동수 부장이 2등(95.4점), 삼양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제36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성료하고, 12월 23일 제36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주)의 유상모 파트장이 3등(94.8점)으로 수료하며 우수성적수료자로 선정됐다.

또한 협회는 12월 23일 제36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온라인 간담회를 가지고 이번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 우수성적수료자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포장협회는 정부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하나인 인력 양성(포장 분야)을 목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36기 교육에서 47명이 수료함에 따라 포장기술관리사는 총 2,918명이 되었다.

(사)한국포장협회

FITI시험연구원과 시험분석 및 포장재 연구개발 MOU 체결

“시험·검사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12월 6일 FITI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대한 시험분석 및 포장재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양 기관은 ▲포장재 시험분석 및 품질평가 시험업무, ▲포장재 성능평가 관련 기술 자문 및 공동 발전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12월 6일 FITI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대한 시험분석 및 포장재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다.

방향 모색, ▲포장재에 대한 연구용역 및 R&D사업 발굴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포장협회 회원사에게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분석 수수료를 20% 할인 제공해 인증 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경호 한국포장협회 회장은 “최근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포장재와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서 포장기업에게 있어서 포장재 관련 시험·검사 업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사들이 식품의 기구용기·포장, 포장재질구평가 및 포장재 신뢰성 시험평가와 관련한 시험·검사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은 “사회적으로 친환경 포장재, 재활용, 탄소저감, ESG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며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우리나라 포장산업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포장협회

KOTITI시험연구원과 시험검사를 위한 MOU 체결

“신뢰성 강화 원하는 포장기업들에 도움”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12월 20일 KOTITI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사)KOTITI시험연구원(원장 이상락)과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및 포장재 신뢰성시험평가 시험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12월 20일 KOTITI 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사)KOTITI 시험연구원(원장 이상락)과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및 포장재 신뢰성시험평가 시험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식품의 기구, 용기·포장, 포장재 재질·구조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광성씨알티(주)

1973년 1월 22일 창립 49주년

금양화학(주)

1979년 1월 20일 창립 43주년

[주]유림원색

1983년 1월 6일 창립 39주년

[주]이콜테크롤

2001년 1월 2일 창립 21주년

[주]진우아이앤피

2011년 1월 1일 창립 11주년

[주]천일

2010년 1월 10일 창립 12주년

평가 및 포장재 신뢰성시험평가 등과 관련해 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의 원활한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한국포장협회 회원사의 시험 및 검사 업무에 관한 협조, ▲각종 기술, 조사 및 분석 정보의 교환, ▲자체 연구사업, 외부 연구과제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참여, ▲연구 개발 및 기술애로에 관한 협조, ▲대외 홍보활동에 관한 협조, ▲기타 상호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포장협회 회원사에게 포장재 재질 · 구조 시험분석 수수료를 15~20% 할인 제공해 시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경호 한국포장협회 회장은 “기존에는 고객사의 요구에 의한 방어적 시험업무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수출을 하거나 강화된 환경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는 포장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포장기술의 우수함을 확인하고 신뢰성 강화를 원하는 포장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

‘자랑스러운 플라스틱산업인상’ 수상

다양한 기능성 포장재 · 친환경 포장재 제조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26일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10회 플라스틱산



▲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26일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10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러운 플라스틱산업인상' 을 수상했다.

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랑스러운 플라스틱 산업인상' 을 수상했다. 최봉규 대표이사는 1991년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 플라스틱 포장재 전문기업 천일산업을 창업하고 숨쉬는 포장재와 향기나는 필름 등을 시장에 선보이며 산업용 포장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2010년에 광주광역시 평동산단에 (주)천일을 설립, 다양한 기

능성 포장재와 친환경 포장재를 제조하고 있다.

또한 최 대표이사는 광주전남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4회 역임하며 매년 조합원 교육, 해외전시회 참관, 업종별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간 상호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천일 전 임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플라스틱산업의 날' 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욱)와 11개 회원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플라스틱 산업인 축제의 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플라스틱산업인' 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산업부 장관 표창 등 25명의 유공자 포상이 있었다.

신원인팩

‘2021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동상 수상

심미성이 뛰어난 친환경 펄프 포장재 ‘펄프클램’

고품질 상품포장 개발 및 유통기업 (주)신원인팩(대표이사 이성구)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펄프 포장재 ‘펄프클램(Pulp Clam)’이 ‘2021 제30회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고품질 상품포장 개발 및 유통기업 (주)신원인팩(대표이사 이성구)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펄프 포장재 '펄프클램(Pulp Clam)'이 '2021 제30회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대전은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출품작의 외관과 독창성을 비롯해 기능, 소재, 경제성 등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동상을 수상한 신원인팩의 '펄프클램'은 천연펄프나 폐지 등 각종 펄프 원료를 물과 혼합하여 흡착, 건조해 가공하는 포장재 및 완충재로, 계란 판 강도보다 강해 펄프의 편견을 뛰어넘는 내구성을 자랑한다.

이 제품은 생분해되는 펄프 소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매립과 소각시에 흙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

이성구 신원인팩 대표이사는 “조개처럼 접어서 내부의 제품을 보호 및 포장하는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제품명을 ‘펄프클램(Pulp Clam)’으로 했다”며 “펄프클램은 다양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포장재에 비해 더욱 심미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성구 신원인팩 대표이사는 “조개처럼 접어

문근식 신명이노텍 대표이사

감사패 수상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한 꾸준한 지원

문근식 (주)신명이노텍 대표이사가 12월 7일 개최된 '2021년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장보고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문 대표이사는 2018년부터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만두세트를 선물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직접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제작하고 증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문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 고생이 많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에 조금



▲ 문근식 (주)신명이노텍 대표이사가 12월 7일 개최된 '2021년 화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장보고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명이노텍은 지난 2020년 10월 20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동원시스템즈

태림포장과 ‘친환경 기능성 박스 공동 개발’ MOU 체결

국내 포장재 시장 친환경화 주도

동원시스템즈(대표이사 조점근)가 국내 최대 골판지포장기업 태림포장(대표이사 이복진)과 종이 소재 기반의 친환경 기능성 박스 공동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12월 17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태림포장과 ‘친환경 기능성 박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과 이복진 태림포장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인 종이 포장재의 사용 확대를 위해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사가 보유한 친환경·신소재 기술을 활용해 ▲신선 식품 포장재 개발 ▲포장재 경량화 ▲포장 비용 절감 등의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국내 포장재 시장의 친환경화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동원시스템즈는 식품을 비롯해 화장품·생활용품·전자기기 등 소비재 전반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국내 1등

종합 포장재기업으로 종이, 연포장, 알루미늄, 캔, 병, 산업용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9년 개발한 국내 최초의 바이오 기반 생분해 파우치 ‘에코소브레(Eco-Sobre)’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포장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차 전지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며 첨단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글로벌세아 산하 태림포장은 식음료, 택배,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포장용 종이 박스



▲ 왼쪽부터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과 이복진 태림포장 대표이사과가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골판지포장기업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100% 재생 페이퍼를 소재로 한 친환경 종이 옷걸이를 개발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체 포장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는 “국내 최대의 종합 포장재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친환경 포장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ESG 경영 및 친환경 포장재의 분야를 넓히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진 태림포장 대표는 “이번 협력으로 친환경 종이의 활용 영역을 확대해 국내 친환경 포장 전환 작업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필 환경 경영 실천에 발맞춰 환경에 책임을 갖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용지와 포장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리온

‘플렉소인쇄’ 포장재 적용 제품 확대

플렉소인쇄 2호 라인 가동 개시

오리온은 플렉소인쇄 2호 라인의 가동을 개시하며 환경 친화적 포장재 적용 제품을 확대한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이번 신규라인에 투입한 50억 원을 포함해 오리온은 지난 2019년부터 안산공장의 플렉소인쇄설비 구축에 총 120억 원을 투자해왔다. 기존 라인과 함께 2호 라인도 본격 가동하면 오리온 전체 제품 중 80%에 플렉소인쇄 포장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초코파이情’, ‘포카칩’, ‘와클’ 등 38개 제품에 적용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플렉소인쇄는 기존 그라비아 방식과 달리 양각 인쇄를 통해 잉크와 유해화학물인 유기용제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포장재 생산방식으로, 오리온은 잉크와 유기용제 사용량을 기존 연간 400톤에서 800톤까지 절감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리온은 ESG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 전인 2014년부터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주요 인기 제품의 포장재 규격을 축소하고 인쇄도수를 줄이는 ‘착한 포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원가 절감분은 가격 동결 및 제품 증량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8년에는 ‘초코파이情’, ‘초코칩쿠키’를 비롯해 총12개 제품의 포장이 환경부 ‘녹색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그룹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생산, 설비, 관리 등 6개 부서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그린 TFT(Green Task Force Team)’를 신설했다. 10월에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법인 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플렉소인쇄설비 추가 가동을 통해 더 많은 제품에 환경 친화적 포장재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포장재 혁신뿐 아니라 국내외 법인의 생산설비 개선을 지속하며 친환경 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

공동주택 6만 가구 대상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착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2021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적인 종이팩 회수 경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하여 각기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1단계 사업)에 이어 2022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이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공동주택 대상 확대 적용에 앞서 환경부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0일에 매일유업, 삼육식품, 서울우유, 연세우유, 정식품, 에스아이지(SIG)콤비블록, 테트라팩코리아, 닥터주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9개 기관과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이팩은 고품질 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 있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배출되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그간 일반팩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멸균팩에 사용된 알루미늄박과 황색 펄프가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백색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제지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이팩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분리하면 파지 재활용 비용은 낮추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은 높이면서 종이팩 자체의 재활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종이팩이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 생협 맞손

포장폐기물 없는 친환경 소비 확산

포장폐기물 및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1년 12월 10일 오후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생협)와 ‘포장폐기물 및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김영향 두레생협 회장,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 김영희 한국대학생협 이사, 윤형근 한살림생협 전무이사, 안인숙 행복중심생협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탄소 감축을 실천해 온 생협의 활동을 공유·확산하고 앞으로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줄이기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협은 소비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농산물 등의 공동구입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이

끌고 있다. 조미김 포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받침대(트레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없애고, 정육 제품의 플라스틱 받침 접시를 종이로 바꿨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을 젓갈 등 식품 포장에 적용하는 등 플라스틱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포장재 없는 매장(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및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1년 12월 10일 오후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생협)와 ‘포장폐기물 및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종이팩 수거함 설치 등 조합원이 참여하는 친환경 실천 운동(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협은 조합원들과 함께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생협 간에 공동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 제작을 추진하고 과일 등 농산물 플라스틱 포장을 최소화하거나 종이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회용 수송포장재를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탄소 감축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친환경 실천 운동(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생협의 탄소 감축과 자원순환 촉진 활동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포장과 소비가 업계와 국민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협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기업은 포장을 간소화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판매하고, 국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포장재공제조합

분리배출 모범시설 선정 · 포상

지자체, 공동·단독주택 등 3개 부문 총 12개소 선정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2021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하여 12곳을 선정·포상하였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 모범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리배출 모범시설 평가위원회는 분리배출 자원순환체계 구축, 품목별 분리배출량,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 참여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합산하여 총 12곳의 분리배출 모범시설을 선정하였다.

지자체부문의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동주택부문 최우수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일동미라주더스타 아파트, 단독주택부문 최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뽕골마을협동조합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시 서구청’ 지자체는 스마트 순환자원 회수센터인 ‘서로e음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품목별 무게를 측정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서로e음)로 주민에게 유가보상하는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이다.

‘온양일동 미라주더스타’ 아파트는 분리수거용기 설치개수가 56개에 달하며, 특히 우유팩 별도 배출로 재생휴지로 교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주민 자원봉사자 7명이 매일 우유팩을 수거하여 용량별로 분류작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2021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하여 12곳을 선정·포상하였다.

업을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펍킨마을협동조합’ 단독주택은 펍킨마을의 마스코트인 ‘펍’과 ‘펍식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유팩, 플라스틱, 캔을 일정수량 이상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 또는 세제로 증정하는 제로웨이스트샵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시상식은 공제조합 주최로 지난해 11월 29일 엘타워에서 부문별 수상자와 동반인, 공제조합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찬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분리배출에 동참하여 귀중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분리배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장재공제조합

종이팩 회수 촉진 공로자 시상식 개최

부문별 유공자 총 9명 선정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지난해 12월 23일 공제조합에서 ‘종이팩 회수 촉진 공로자’ 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은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회수 체계를 구축하거나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택배 활용 회수 활성화 등 종이팩 회수·재활용 실적에 기여한 지자체, 배출사업장, 생산자 등 총 9명의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종이팩 다량배출 사업장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부문 수상자는 삼성전자와 통합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선

정되었다. 또 공동주택 분리배출 체계 구축부문은 세종시·화성시가, 택배 활용 회수 활성화 부문은 매일유업·닥터주부가, 실적제고 부문에는 광주광역시 북구·고양시·아산시가 각각 선정되었다.

삼성전자(주) 환경보전그룹(정의진 프로)과 통합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문영순 회장)는 사업장·어린이집 내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화성시와 고양시로 인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세종시(최지원 주무관)와 화성시(성태희 주무관)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수거해왔으며, 특히 환경부가 추진하는 일반팩·멸균팩 구분 분리배출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종이팩 분리배출 및 회수 체계 구축에 노력하였다.

매일유업주식회사(임기백 팀장)와 닥터주부(김회국 팀장)는 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택배를 활용한 회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이옥춘 과장), 고양시(박인범 주무관), 아산시(류현덕 주무관)는 종이팩 전용 운반차량 지정, 폐지와 별도 선별, 관내 종이팩 교환 행사 운영, 종이팩 수거 확대를 위한 전용수거함 및 봉투 제작·보급, 민관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회수실적 제고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종이팩 회수 촉진 공로자 시상식은 공제조합 주관으로 12월 23일 대회의실에서 부문별 수상자와 공제조합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찬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분리배출·회수 현장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종이팩 회수 활성화에 힘써준 데 대하여 수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러한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와 종이팩 다량배출 사업장 등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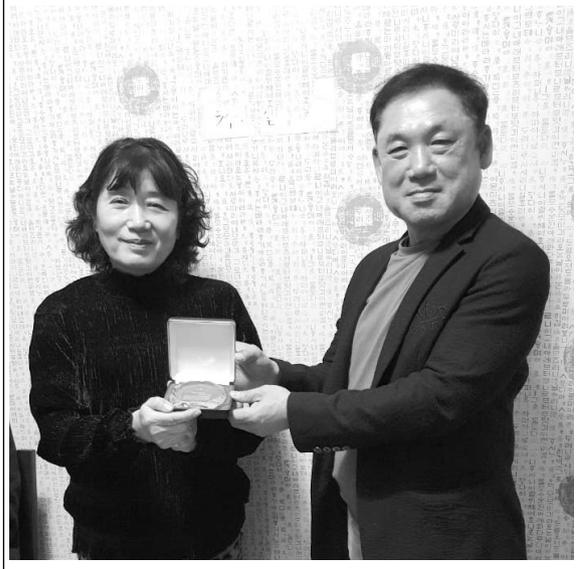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지난해 12월 23일 공제조합에서 '종이팩 회수 촉진 공로자' 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포장수출입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주)HPM글로벌 고 방시영 회장 · (주)경연전람 김영수 대표



▲ 한국포장수출입협회(회장 김치곤)는 창립 제10주년을 맞아 협회 창립 시 공로가 지대한 (주)HPM글로벌 고 방시영 회장에게 특별공로상을,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경연전람 김영수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한국포장수출입협회(회장 김치곤)는 창립 제10주년을 맞아 협회 창립 시 공로가 지대한 (주)HPM글

로벌 고 방시영 회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창립 후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경연전람 김영수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21일 양사를 직접 방문하여 수여했다.

먼저 우리나라 포장산업의 수출축진을 위해 2011년 11월 협회를 창립하고 2020년 4월 작고하시기까지 8년 5개월간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협회의 단합과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주)HPM글로벌 고 방시영 회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수상은 미망인 (주)HPM글로벌 정원영 회장이 대신했다.

이와 함께 협회 창립 시부터 물심양면으로 크게 협조하여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주)경연전람 김영수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협약

AIoT 기반 물류 · 유통분야 산업 발전 도모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회장 김윤)와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최원혁)는 AIoT 기반 물류 · 유통분야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AIoT 기반 물류 · 유통분야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물류와 유통,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메타로지스틱스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 ▲AIoT 기반 물류·유통 분야의 파일럿사업 확대, ▲물류·유통분야 혁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IoT,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문 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 물류·유통 분야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양 기관은 특히 ‘메타로지스틱스포럼(가칭)’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강성주 부회장은 “물류와 유통,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메타로지스틱스포럼’이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AIoT와 물류·유통 분야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물류산업

에 IT 도입이 경쟁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류기업들이 IT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AIoT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DL케미칼

‘디파인’으로 세계포장기구 수상

원재료 절감 효과 및 우수한 자원재활용률

DL케미칼은 자사의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제품인 ‘D.FINE(이하 디파인)’이 세계포장기구(WPO)가 선정하는 ‘2022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지난해 12월 24일 밝혔다.

WPO는 1968년에 포장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1970년부터 패키징 기술 발전에 공헌한 혁신적 제품들을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에 DL케미칼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 국제포장대전(KOREA STAR AWARDS 20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디파인’ 제품을 출품했다.

올해 ‘2022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에는 전 세계 37개국에서 출품한 240개의 패키징 신기술이 수상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디파인’은 ‘포장 원료 및 재료’ 부분에서 원재료 절감 효과 및 자원재활용률 등 탁월한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의 영예를 안았다.

‘디파인’은 DL케미칼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제품이다.

기존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대비 향상된 물성을 바탕으로 한 원재료 절감 효과가 특징으로 ‘디파인’을 원료로 사용하면 기존보다 더 튼튼하면서도 두께는



▲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회장 김윤)와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최원혁)는 AIoT 기반 물류·유통분야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왼쪽부터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강성주 부회장의 모습.

25% 얇아진 산업용 포장백의 생산이 가능하다. 가공성 역시 우수해 산업용 필름 외에도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 및 농업용 필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재활용률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일반적인 재활용 원료 사용률은 20~30%이나 ‘디파인’을 사용하면 재활용 원료를 50% 이상 사용해도 신품 수준의 품질 구현이 가능하다.

이진호 DL케미칼 기초소재 사업본부 본부장은 “디파인은 탁월한 원료 절감효과 및 업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디파인이 전 세계 포장업계에서 친환경 포장 원료로 인정받은 것”이라 말했다.

칼렛스토어

‘칼렛에어’ 파우치 출시

스티로폼 상자 대체

칼렛바이오(대표이사 권영삼)는 스티로폼(EPS) 상자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칼렛에어’ 파우치 제품을 출시했다.



▲ 칼렛에어 파우치의 모습.

친환경 포장재 플랫폼 칼렛스토어(CARETSTORE)는 LDPE(단일 소재)를 적용해 유통 부피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성(100%)은 높여 탄소 중립에 앞장설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포장 솔루션 칼렛에어를 선보였다.

칼렛에어는 친환경 엠보싱 방식의 다중 공기층을 연결해 차별화한 보온·보냉 포장재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 폐기물 등 환경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칼렛에어 파우치는 25°C에서 냉장제품 배송실험을 통해 30시간 넘게 0~6°C로 유지하면서 스티로폼 상자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엠보싱 방식 다중 공기층이 적용돼 외부 충격에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완충 효과가 뛰어나 따로 완충재 없이 최소 포장으로 안전한 배송을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스티로폼 상자의 문제점인 큰 부피·무게를 맞춤 설계로 최소화해 자재 관리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분진이나 먼지에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

황시내 칼렛바이오 이사는 “제작 MOQ(최소 발주수량)의 최소화로 중소기업도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지속가능성과 업무 효율 극대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포장재 변화를 주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선언

업계 최초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발간

CJ제일제당이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Carbon Neutral&Zero Waste) 실현’을 선언했다. CJ제일제당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 중장기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지난해 12월 22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 최초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이라는 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내 "단순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전 사업영역에 걸쳐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선언"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저탄소화와 신기술 개발·확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우위가 될 것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튼실한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중장기 핵심 전략 방향은 ▲사업장의 탈(脫)탄소 에너지 전환 ▲제품과 솔루션의 친환경적인 혁신 ▲공급망·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반의 그린 파트너십 구축 등 3가지다. 3대 핵심 전략을 토대로 온실가스·에너지·물·폐기물 등 각 영역별로 12가지 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는 전 사업장의 배출량을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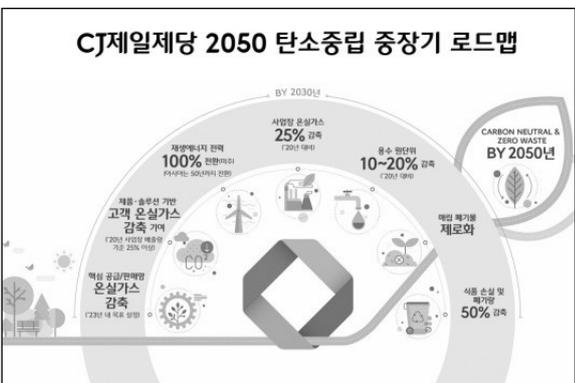
년까지 2020년 대비 25% 감축한다. 전력 에너지원은 2030년까지 미주·유럽 사업장부터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바이오 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2050년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한다.

물 사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매립 폐기물은 제로화한다. 수자원이 취약한 지역임에도 취수량이 많은 중국, 인도네시아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물 사용저감 설비투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제품 생산량당 취수량을 10~20% 줄인다. 매립 폐기물은 현재 제로화 수준(0.4%)인 국내 역량을 글로벌로도 확대해 203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 매립 제로화를 추진한다. 식품 기부 및 재활용을 확대해 식품 손실·폐기량도 50%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솔루션 확대에도 힘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PHA를 활용한 제품이나 대체육, 배양육 기반의 식품, 푸드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제품 출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의 고객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재료 조달부터 제품 판매와 폐기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의 탄소배출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제품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망·협력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탄소발자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자 결정시에도 잠재적 탄소비용 부담까지 고려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내부 탄소가격제'도 도입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투자 재원은 ESG 연계 대출 등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CJ제일제당은 싱가포르 DBS은행과 1,500억 원 규모의 'ESG경영 연계 대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통상적인 회사채 발행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협정한 ESG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인하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 식품업계 최초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CJ제일제당

고객목소리로 올해 270여 건 제품 개선

파우치죽 개봉선 높이, 컵반 유통기한 표시 등

“크로와상을 레시피에 맞춰 조리했는데 베이커리 제품만큼 충분히 부풀지 않아 아쉬웠어요”, “밀가루 냄새도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달 전 CJ제일제당 고객행복센터에 ‘고메 베이커리 크로와상’ 제품에 대한 고객 의견이 접수됐다. 이 내용은 즉시 유관 부서에 전달됐고, 협업부서들이 함께 원인 파악 및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풍성한 볼륨감을 위해 반죽의 배합을 조정해 전문점 빵과 같이 외형을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천연발효 버터를 사용해 미세한 밀가루 냄새를 잡고 맛과 풍미도 한층 끌어올렸다. 패키지도 고급 베이커리 전문점 느낌이 나도록 바꿨다. 이렇듯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고메 크로와상, 스콘 등 제품 4종을 리뉴얼하고 신제품 토마토햄 치즈 페스츄리, 달콤콘치즈 페스츄리 등 2종을 출시했다.

CJ제일제당이 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VOC)를 담아 제품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21년 한해만 크고 작은 제품 개선 사례가 11월 누계로 270여 건에 이르며, 해마다 10% 가량 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견, 자체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소비자 요구 등을 매일 점검하고 마케팅, 생산, 영업, 연구소 등 전 밸류체인에 이를 전달한다. 이후 의견을 수렴한 부서에서는 소비자 요구를 최대한 빠르게 제품에 반영하며, 이를 통해 개선된 제품은 고객 관점에서 검증하고 별도의 소비자 품평도 거친다.

2021년에도 많은 제품들이 고객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다.

고메 피자는 부드러운 도우, 신선한 풍미를 살린 소스와 치즈 토핑 등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올 상반기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과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했다.

비비고 파우치죽은 전자레인지에 세워 조리할 때 패키지 윗부분이 걸려 넘어진다는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파우치 개봉선 높이를 낮췄다.

햇반컵반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표기 위치를 용기 밑바닥에서 옆면으로 이동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포장이 약간 부풀어 보여 변질된 것 아니냐는 소비자 문의에 따라 질소 충전량을 조정했다.

아울러 선물세트에서 스캠 노란 플라스틱 뚜껑을 없앴으며, 백설 고급유의 유색 페트병은 투명한 색으로 바꾸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했다. ‘가치소비’ 트렌드 확대에 따라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



▲ CJ제일제당이 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VOC)를 담아 제품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고메 베이커리 크로와상’의 개선 제품.

의 목소리를 ESG경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최신 트렌드 분석은 물론 소비자 목소리와 니즈에 맞춰 신제품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F&B

ESG 실천 위한 업무 협약

‘동원샘물 라벨프리’ 러닝포인트 제공

동원F&B(대표이사 김재욱)가 스타트업 러닝포인트와 ESG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동원F&B는 러닝포인트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협약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동원F&B 전략사업부장과 박태훈 러닝포인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동원F&B는 이번 협약을 통해 러닝포인트가 개최하

는 비대면 기부 마라톤 대회 ‘애니멀런’의 공식 후원사로서 매달 무라벨 친환경 생수 ‘동원샘물 라벨프리’를 러닝포인트에 제공한다. 동원샘물 라벨프리는 페트병 몸체와 뚜껑에 라벨을 없애 비닐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편의성을 높인 친환경 생수다. 러닝포인트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매달 비대면 기부 마라톤 애니멀런을 주최하고 있다. 애니멀런 참가자들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자유롭게 미션 거리를 달린 후 측정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 각자의 기록을 SNS에 인증하면 된다. 참가비 일부는 멸종 위기 동물들을 위해 세계자연기금(WWF)에 기부된다.

동원F&B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 의미를 지닌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환경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보우 밀빨대

2021 ‘핀업 디자인 어워드 베스트 100’

부속물을 펄프화한 ‘얼스팩’ 사용

친환경 브랜드 웰보우의 밀빨대가 국내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2021 핀업 디자인 어워드(PIN UP Design Awards)’에서 ‘웰보우 밀빨대’로 ‘핀업 베스트(PINUP BEST) 100’을 수상했다고 12월 29일 밝혔다.

2021 핀업 디자인 어워드는 한국산업디자인협회(KAID)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 동원F&B가 스타트업 러닝포인트와 ESG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과 국내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며 국내 산업 전반에서 최고의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어워드에서 핀업 베스트 100을 받은 '자연 그대로 사용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웰보우 밀빨대'는 제품명에 맞게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웰보우의 야심작으로 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지속가능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브랜드의 마인드가 돋보이는 상품이다.

웰보우 밀빨대는 플라스틱 대체 제품으로 밀을 탈곡하고 버려지는 밀대를 잘라 소금물에 열탕 소독하고 자외선 건조해 만든 자연 그대로의 빨대로, 패키지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도 돼 웰보우 철학에 부합하며 식품용 종이인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버려지는 부속물을 펄프화한 '얼스팩'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자연 그대로 소금물로 열탕 소독하고 자외선 건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밀빨대는 플라스틱 유해 물질에서 안전하며 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재다. 패키지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코팅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분리수거의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빨대의 단면인 동그라미를 모티브로 밀이 익기 전과 익었을 때가 연상되는 연두색과 노란색을 사용해 디자인된 이번 패키지는 최대한 내추럴하게 표현하고자 투명도를 조정해 재생지에 스며들게 디자인됐다.

패키지 박스는 휴대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구현됐으며,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접어서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열고 닫을 때 제품의 환경 메시지가 보이도록 구성했다.

판매를 고려해 박스의 점선을 뜯으면 그대로 디스플레이되며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판매자와 구매자를 고려해 디자인됐다.

웰보우 담당자는 "사용 후에는 자연 그대로 땅으로 돌아가는 밀빨대는 웰보우가 생각하기에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이며, 친환경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드는 과정부터 사용하고 버려지는 과정까지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고려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라며 "이번 핀업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친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한 웰보우의 기본 철학이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위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웰보우 밀빨대가 '2021 핀업 디자인 어워드 베스트 100'을 수상했다.

삼원특수지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임금 BEST 기업'

국내 친환경 종이 선도기업 (주)삼원특수지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임금 BEST 기업'에 선정되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 선정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청년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기업 정보를 발굴,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 임금과 신규 채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삼원특수지 관계자는 “직원들의 눈높이를 반영한 임금 책정, 공정한 성과평가 및 결과에 대한 보상체계 수립 등 삼원특수지의 지속적인 노력이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실로 이어졌고,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지스틱스 ESG 서밋

제1회 컨퍼런스 ‘환경’ 개최

“ESG 비전 달성의 출발점”

로지스틱스 ESG 서밋 제1회 컨퍼런스 ‘환경’이 12월 2일 경기도 용인시 글로벌 로지스틱스 플랫폼 센터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유통산업설비협회와 (주)비온드엑스가 주최하고, (주)알포터가 주관으로 열린 컨퍼런스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의 비전과 전망을 조망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정부 기관은 물론 학계와 유관 협회, 제조, 유통, 이커머스, SCM, SI, 언론,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물류 ESG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주)알포터 박용재 대표의 환영

사를 시작으로 ESG Summit 추진위원장인 윤현기 교수의 ‘컨퍼런스 개요 및 활동계획’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 김성봉 자원순환포장기술원 원장의 ‘국정과제로서의 ESG 방향과 정책’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한김벌리 정성태 박사의 ‘다국적 CPG 제조기업의 ESG 전략’, 서울과학기술대 배재근 교수의 ‘자원순환 사업의 현재와 미래’, 농수산식품공사 노계호 이사장의 ‘농식품 기업의 ESG’ 등의 발표가 있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영물류 이상근 대표의 ‘뉴노멀 시대의 물류 ESG 방향’, 비온드엑스 김철민 대표의 ‘플랫폼·이커머스시대의 물류 ESG 과제’, ACI 김현수 대표의 ‘생활계 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알포터 박철호 팀장의 ‘생활계 폐기물 업사이클링 공용 물류기기의 풀링사례’ 등의 발표가 있었다.

컨퍼런스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가 물류 ESG 플랫폼 구축과 녹색 물류에 기초한 ESG 비전 달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ESG 실천을 위한 미래 비전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 (사)한국유통산업설비협회와 (주)비온드엑스가 주최하고, (주)알포터 주관하는 로지스틱스 ESG 서밋 제1회 컨퍼런스 ‘환경’이 12월 2일 경기도 용인시 글로벌 로지스틱스 플랫폼 센터에서 개최됐다.